

새한, 영업이익 12억에 순이익 151억

2004년 매출액 7426억원 달성 ... 구조조정에 경영개선 성과 때문에

새한은 2004년 매출 7426억원, 영업이익 12억원, 순이익 151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새한은 2004년 순이익이 151억원을 기록한데 대해 전년대비 251% 증가한 것으로, 워크아웃 이후 총 3796억원의 자구실적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경영개선 노력 덕택이라고 강조했다.

새한 관계자는 “미래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필터·수처리 등 환경소재사업이 꾸준히 호조를 보였고 장섬유 Polyester 직물인 에코모(ECOMO)등 고수익 차별화 직물사업의 영업실적이 좋아 흑자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면 및 원사 등 화섬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원료가격 급상승 등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해 전체 영업이익은 94% 감소했다.

한편, 새한의 2004년 말 차입금은 전년대비 613억원 감소한 618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07%로 낮아졌다.

<화학저널 2005/02/24>